

| 예 배 | 일 시 | 장 소 |
|--------|--------------|--------|
| 주일예배 | 주일 오후 1시 50분 | 예배당 |
| 어린이 예배 | 주일 오후 1시 50분 | 교육관 |
| 청년 모듬 | 주일 오후 3시 30분 | 교육관 |
|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7시 | 음대 강의실 |
| 한민 말씀방 | 매일 | 단체 카톡방 |

주일 예배 봉사위원

| | 05. 04 | 05. 11 | 05. 18 |
|---------|--------|--------|--------|
| 대 표 기 도 | 이상호 목사 | 최종열 성도 | 이윤선 성도 |
| 성 경 봉 독 | 정환영 형제 | 최종열 성도 | 이윤선 성도 |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부활절 헌금은 독일 적십자사를 통해 전액(310유로) 구제헌금으로 송금했습니다.
4. 브레멘지역 연합 찬양제 - 5월29일(목) 오후2시 한민예배당에서 모입니다.
5. 성찬예식 - 다음주일(5월4일)은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6. 교수 취임 연주회 - Andreas Mäder 교수(29일, 오후 6시 음대 콘서트홀)
7. 4월 생일 축하 - 이윤선 성도(13일)
8. 나눔의 시간 - Tea Time으로 모입니다.

교우동정

| 생일 | 오서진 자매 |
|----|--------|
| | |

지난주통계

| | |
|-----------|--|
| 주일헌금 | |
| 부활헌금 | |
| | |
| | |
| | |
| | |
| 합계 (Euro) | |
| 온라인헌금(4월) |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 | Liebevoll 찬양팀 |
|----------------------------------|--|---------------|
| *찬 양 Gemeindelied | ----- | |
| *송 영 Chor | ----- | 반주자 |
| *기 원 Altargebet | ----- |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 |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 289장 | 다같이 |
| 기 도 Gebet | ----- | 이상호 목사 |
| 성경봉독 Predigttext | 고전 15 : 20 - 24(신p282) (1.Korinther 15:20-24) | 김정규 형제 |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 새 가족 환영 | 이상호 목사 |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 | 이상호 목사 |
| 설 교 Predigt | 부활 이후의 신앙과 삶 | 이상호 목사 |
| *축 도 Segnungsgebet | ----- | 이상호 목사 |
| * 송 영 Chor | ----- | 반주자 |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백승민 자매의 갑상선 암 수술 이후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4. 브레멘지역 연합찬양제를 위해서(5월29일, 오후 2시, 한민예배당)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인지, 아니면 종교의 이름으로 덧씌워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확고한 신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념체계에 동지를 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낙심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든 신념체계가 있든,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다면, 그는 믿음이 아닌 하나의 신념체계나 모호한 자신감에 근거를 두었음이 드러납니다. 반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믿음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폭발적인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딤후1:7) 이는 측정 가능한 어떤 힘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마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억하는데서 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날마다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우리에게는 낙심하지 않을 필요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에 힘입어 세상일을 염려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 낙심하는가 / 조정민 목사(베이직 교회 담임)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부활신앙의 절실함에 대해서 나눠 보세요.
2.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눠 보세요.